

‘대화 해결’ 꿈쩍 않는 日에 경제전면전 선포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日記류 변화 없어 ‘맞대응 카드’ 의견 수렴 기간 대화 여지 남겨 등급 ‘가외2’로 낮춰 수출 통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

◇대화 안 통한 日에 상응조치 카드 꺼내 들어=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외1, 가외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외2 지역에 넣었다. 가외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 가외2 지역은 일본처럼 가외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외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도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외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외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외1 지역 국가의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외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



전국사·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 수출허가는 가외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외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심사 기간은 가외1 지역은 5일이나 가외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외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는 가외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 “국민여망 부응” vs “지명 철회”

與 “사법개혁 책임자” 철통방어 황교안 “사노맹 실행” 색깔론 제기 보수야권 ‘보이콧 카드’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책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검증 과정에서 거센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2일 조 후보자의 적극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달린 만큼 강력한 방어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

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할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의 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비난을 파붓기 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으로 맹공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행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꾀하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좌파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

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 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안이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내일 제출

내달 2일까지 청문회...추석전 임명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한 제출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기간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채택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청문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중국·마카오·몽골			동남아·대만		
황금연휴 특별기 백두산 연갈백두산 4일, 5일 499,000원~ 수/목 3박4일, 토/일 4박5일 + 8.24부터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관광	장가계 장가계 직항 4일, 5일 899,000원~ 계주항공 목 3박4일, 목 4박5일 + 8.22부터 사천항공 화 3박4일, 금 4박5일 + 9.13부터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대자연의 경동 마오쑤오	마카오 마카오 4일 641,000원~ 화/일 2박4일, 목 3박5일 + 제2날짜있음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30~ 선택가능 있음 #노소영+노을산+다이나미 여행	다낭 다낭 AVPF13_E 다낭 호이안후에 4일 499,000원~ 매일출항 3박4일 + 제2날짜있음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세부 세부 5일_일금리조트 494,000원~ 주 4~6회 운항 + 일/화/목요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호캉스+리조트+산악	방콕 방콕 AAFP01_X 방콕-파타야 5일, 6일 490,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요트투어 + 스노클링을 만나다
대만·지우펀·스펀 4일 개천절 10월 3일 115만원~ 추석 9월 12일 135만원~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상해 상해-장가계 4일, 5일 2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항공사기>상해시가지	상해/장가계 상해-장가계 4일, 5일 9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일식아름 여행 #5일초월	몽골 몽골 울란바타르 4일, 5일 899,000원~ 8.20 3박4일, 8.23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시원한몽골 여행 #몽골, 바람	코나키나발루 코나키나발루 5일, 6일 589,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30~ 선택가능 있음 #아일랜드투어 #아일랜드	대만 대만-지우펀-스펀 4일 490,000원~ 주 4~7회 운항 + 일/화/목요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오감만족 여행 #일/토/목
상해/캄보디아 상해-캄보디아 4일, 5일 9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가별 \$40~ 선택가능 있음 #천년의신비 #앙korwat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장가계 직항은 정부 인허가 승인 조건입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항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합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에 별도 포함됩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청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교호설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항공권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사 내세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도 |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